

남구, 1인 가구 '호신용품·밀키트' 등 지원...시 특성화 사업 선정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오는 6월부터 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호신용품과 식생활을 개선하는 특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남구는 "광주시 주관 1인 가구 특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사업비 2천100만원을 투입해 관내 18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나는 홀로, 걱정 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는 홀로, 걱정 제로' 특성화 사업은 2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먼저 오는 6월부터 1인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 호신용품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범죄 위험에 노출돼 불안감을 떠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2023년 광주시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범죄 위험에 대해 불안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여성 비율은 45.7%, 특히 야간 보행에 대한 불안감은 45.9%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오는 6월부터

관내 18세 이상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호신용품 지원 신청을 받은 뒤 사업비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호신용 스프레이를 비롯해 경보기, LED 안전 호루라기, 송장 지우개 등 호신용품 세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는 식생활 개선을 위한 특화 사업도 추진한다.

불규칙한 식생활 패턴을 안정화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 1인 가구 주민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관내 18세 이상 1인 가구 구성원이며, 신청자가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취약 가구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에게는 식사 밀키트와 김장 키트 등 식재료를 지원하며, 남구 가족센터 공유주방에서 진행하는 '혼밥 도우미' 요리 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희태 기자

북구, 소상공인 지원기관·단체와 역량 결집해 경제위기 극복 나서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기관·단체와 함께 가능한 역량을 총결집해 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에 나섰다.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매곡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관·단체 사업공유 설명회'가 열렸다.

소상공인 지원기관·단체 사업공유 설명회는 지원기관별 사업들을 소상공인 단체와 적극 공유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각자의 여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북구가 지역 소상공인 유관기관과 협업해 마련됐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북구청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시 및 5개 자치구별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참여자 간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설명회에서 안내된 지원정책은 소상공인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정책자금 지원을 비롯해 중앙·지방 등 총 9개 지원기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총망라돼 소개됐다.

또한 북구는 앞서 지난 3월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기관·단체 등과 구축한 유기적인 소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각종 지원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상호공유해 홍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북구는 지난 3월부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영안정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6개 관계부서로 구성된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 TF'를 운영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발굴과 맞춤형 홍보 등에 집중하고 있다.

/김재섭 기자

동구, 시인 문병란 기획전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시 그림책 '시아, 그림아, 함께 놀자' 발간에 따라 기획된 행사다. 앞서 동구는 지난 1월 '시인 문병란의 집'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인의 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기획 프로그램 '시아, 그림아, 함께 놀자'를 진행했다. 동구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그림들을 책으로 한데 엮은 그림책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

'시아, 그림아, 함께 놀자' 프로그램에서는 시인의 시 한 편당 4명의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고, 시 8편에 32명의 아이들이 참여했다. 원시 제목은 공개하지 않고 오직 시간 제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극대화하고 완성된 그림에는 아이들로 해금 직접 제목을 붙이도록 했다.

기획전 개막 후 아이들 저마다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담아 풀어낸 그림과 작품 제목들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고 탄성과 흥미를 이끌어내기 충분하다는 평가다.

임택 구청장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그린 그림에서 보여주듯 한결 같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주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최근 서구청 들불홀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기 서구청소년구정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구청 제공

서구, 청소년구정참여단 '함께 서구' 만들기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최근 청소년과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기 서구청소년구정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제9기 서구청소년구정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사회와 아동 권리에 관심이 있는 아동·청소년 80명으로 구성됐으며 발대식은 ▲세월호 10주기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2023년 구정참

여단 활동 결과 공유 ▲분과 구성을 위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꿈꾸는 서구청' 조직(6개 국)을 만드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구정참여단은 12월까지 서구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청소년참여예산 신청 ▲구정사업참여(맨발걷기, 줌깡 등) ▲역량강화워크숍 ▲정책 바스켓 운영 ▲구청장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등 아동 참여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서구는 구정참여단의 제안에 대해 관련부서 검토 후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구정참여단의 제안 의견 13개 중 9개를 채택했다.

아울러 서구는 참여자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인정하고 우수 참여단원에 대한 구청장상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광산구, 민간 협업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고용노동부의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도한 민간형 이동노동자 휴게 쉼터를 올해 다양한 시설로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산구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달고나(달리다 고단하면 나에게로 와)'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 커피숍 21개소를 이동노동자 휴게 쉼터로 지정,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사업 효과와 장점 극대화를 위해 광산구는 올해 커피숍과 더불어 편의점으로 쉼터를 확대한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벌크커피'와 더불어 BGF 리테일 전남지역부외도 손잡고 커피숍, 편의점 32개소를 신규 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광산구에선 총 53개 휴게 쉼터가 운영된다.

또 쉼터와 연계해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라이더유니온과 함께 광주지역 배달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을 높이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안전교육을 수료한 노동자에게는 안전용품을 지급한다.

광산구는 이달 참여기관 협약식을 시작으로 휴게 쉼터 운영을 본격화하고 6월 참여자를 모집해 안전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기만 기자

공정과 상식